

LG화학도 적대적 M&A 타겟 부상

SK 현금성 자산 무려 1조4229억원 보유 ... LG화학도 6888억원 달해

국내 우량기업들의 높은 수익성과 풍부한 보유현금이 기업 사냥꾼의 인수합병(M&A) 욕구를 자극함에 따라 한국시장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M&A 열풍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우증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들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 상품 등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2000년 이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현금성 자산 상위 20사(2005)
(단위: 100만원)

회사명	현금성 자산
삼성전자	6,868,605
현대자동차	6,006,309
포스코	3,257,787
LG필립스LCD	1,465,379
SK	1,411,972
현대중공업	1,411,972
삼성중공업	1,370,764
하이닉스	1,216,299
S-Oil	1,190,000
KT	1,180,312
삼성SDI	1,145,594
기아자동차	1,116,724
SK텔레콤	970,188
대우건설	869,528
대우조선해양	757,790
LG화학	688,827
한진해운	651,361
현대미포조선	650,531
강원랜드	648,366
대한항공	605,007

+ 하이닉스는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로 감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우증권의 유니버스(분석 대상 기업군)에 포함된 제조기업 146사의 2000년 말 기준 보유현금은 19조9120억원에서 2005년 말 추정치 기준 47조7193억원으로 178% 증가했다.

조사대상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4%에서 14.7%로 개선돼 시중 금리의 3배 수준에 달하게 됐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미래에 대비한 설비투자과 배당에는 인색해 보유현금이 꾸준히 늘어난 셈이다.

특히, 우량 기업일수록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업종 상장기업들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유현금이 많은 20대 우량기업은 2005년 말 33조4833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5년 이익감소와 설비투자 증가로 보유현금이 7.6%로 줄었지만 6조8686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1위 자리를 지켰다.

LG필립스LCD도 14.9% 늘어난 1조4653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UBS증권이 적대적 인수합병 노출 가능 기업으로 언급한 SK도 1조4119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다.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을 인수하면 피인수기업의 현금으로 인수대금의 일부를 지불할 수 있고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기업일수록 배당 여력이 높아 헤지펀드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기업들의 ROE가 상승하고 보유현금이 늘어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후반에 M&A가 전성시대를 맞은 역사적 경험도 향후 한국시장에 M&A 열풍이 불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우증권 이원선 애널리스트는 “매년 평균 10% 이상 늘어나고 있는 현금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ROE가 떨어지게 된다”며 “기업들은 이익률 유지를 위해 자연스럽게 우량기업 인수합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적으로는 설비투자에 자금을 투자하겠지만 적정한 설비투자를 하고도 남은 자금이 기업사냥의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우증권은 2006년과 2007년에는 정보기술(IT) 경기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기업실적이 개선돼 2007년 말에는 분석대상 146개 제조기업의 보유 현금에 2005년 말보다 46.7% 늘어난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증권 이종우 센터장은 “적대적 인수합병은 주로 해외 헤지펀드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기업간에는 우호적인 인수합병이 우세할 것”이라며 “상장사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3/14>